日, 11세기 불화 '상품상생도' 발견

세계문화유산 뵤도인 법당 조사과정서

현존 最古 '구품내영도' 보유
수리시 분해된 附材 조사 중
X선 · 적외선 촬영 등 과정에서
육안으론 안 보이던 불화 확인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 불교정원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천년고찰 뵤도인(平等院)에서 잊혀졌던 불화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12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교토신문' 등은 이 놀라운 발견을 특별 보도했다.

교토부 우지(宇治)시에 소재한 뵤도인은 1052년, 당시 일본 최고의 세도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별장을 개조해 세워진 사찰이다. 창건 당시의 규모에서 대폭 축소되었으나, 아미타불을 모신 봉황당(鳳凰堂)은 〈관무량수경〉에서 설하는 극락세계를 그대로 재현한 '정토식 정원' 으로 199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창건 당시 봉황당의 벽면에는 일본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구품내영도(九品來迎圖)' 가 그려져 있었다. 구품내영도는 아미타불이 염불수행을 한 이들을 극락에서 맞이하는 모습을 9가지로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봉황당의 구품내영도는 17세기에 이루어진 중수과정에서 원래의 자리에서 철거되어 별도로 보관되어 왔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수리와 학술조사에서 3쌍 6매 나무벽에 그려진 내영도들이 창건 당시의 불화로 명확한 시기가 밝혀지면서 일제히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수리 중에 분해된 고재와 부재들은 별도로 뵤도인 박물관에서 보관해 왔다.

지난 2018년 보존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부재들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그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부터 부재들의 표면에 대한 X선과 적외선 촬영 등을 통한 전체조사가 진행, 최종적으로 보관 중이던 부재에 '상품상생도(上品上生圖)' 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높이 4.7m, 폭 1.6m의 부재는 본래 봉황당의 정면 중앙에 있었던 문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문의 중앙부분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들과 극락세계의 누각들을 묘사한 그림과 산수화가 일부 발견됐다.


그림이 발견된 중앙문 부재앞에서 상품상생도를 설명하는 카미이 몬쇼 주지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조사를 담당한 도쿄문화재연구소 측은 "본래 중앙문의 좌우 벽에 상품중생도와 상품하생도가 그려져 있었기에 상품상생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12일 뵤도인 경내 박물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술사학자 카스야 마코토 교수는 "무수한 불보살이 화면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도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상품상생도가 12세기의 작품이기에, 이번 발견은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로 중요하며 당장 국보로 지정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견을 접한 전문가들도 "뵤도인의 건축구조가 극락세계를 지상에 재현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실내까지 극채색의 불화로 완벽하게 극락정토를 장엄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뵤도인의 주지 카미이 몬쇼 스님은 "구품내영도는 말법의 세상에서 구제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원이 담긴 그림이다. 종교화로서도 대담하고 독창적인 구도로, 이러한 명작이 다시금 발견되어 매우 놀랍고 또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상품상생도의 발견을 계기로 다른 구품내영도에 관한 조사결과와 사진, 그림 등도 뵤도인 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종교문서 발간 검열 '논란'

정부 검토 없는 발간 금지
불교 등 종교 탄압 강화돼


검열이 시작된 이후 모든 불교 서적이 서점에서 사라졌다. 사진출처=비터윈터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전문 온라인 매거진 '비터윈터' 는 10월 19일 중국정부의 새로운 종교 탄압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검열을 받지 않은 모든 종교 자료의 출판, 복사, 배송을 금지했다.

지난 9월 14일 허난성의 중심지인 뤄양시의 교육환경보호국은 미승인 종교 자료의 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인쇄소에 대한 긴급 시찰에 나섰다. 시찰을 받은 한 인쇄소 사장은 "정부는 금지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쇄소 창고를 점검하고 모든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다. 심지어 바닥에 버려진 종이까지 전부 살펴봤다. 미승인 자료가 발견되면 벌금형,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사장은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공산당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내 한 인쇄소가 미승인 종교 서적 인쇄를 이유로 문을 닫았으며 일부 직원이 체포됐다"며 인쇄, 출판 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출판이 아닌 단순 복사 업계에도 동일한 금지령이 내려졌다. 뤄양의 한 복사제본 전문점의 직원은 "엄격한 검열 때문에 종교서적은 복사할 수 없다. 종교 자료를 복사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서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사본을 보관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편물과 택배물도 검열 대상에 포함되었다. 내용물에 종교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관제물' 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배송된다. 뤄양의 한 택배회사 직원은 "정부가 우편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부 승인도서만 우편 발송이 허용되며 미승인 자료는 모두 발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는 장시성 푸저우시가 관내 모든 사찰의 해외 불교 서적 보관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 방침은 '외세 침투 방지' 라는 명분으로 취해졌다. 모 사찰 관계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에 반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목조 동자상서 복장 유물 대거 발견

세계문화유산 엔랴쿠지서
12세기作 금동불도 확인돼
'전례 없는 발견' 관심 고조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된 호법동자상(우), 동자상 내부에서 발견된 금동부동명왕입상(좌). 사진출처=교토신문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히에이산(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에서 12세기의 금동불이 발견됐다. 지난 10월 16일 일본의 ' NHK 방송'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사들은 전례가 없는 발견의 전모를 보도했다.

엔랴쿠지와 오즈시 역사박물관 측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엔랴쿠지가 소장 중인 호법동자입상(護法童子立像)의 내부에서 금동부동명왕상과 복장유물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호법동자상의 복장물로 부동명왕상을 안치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호법동자란 덕이 높은 고승이나 수행정진하는 학인들을 옹호한다고 알려진 호법신이다. 엔랴쿠지에서는 히에이산을 돌며 수행하는 회봉(回峰) 수행자들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모셔왔다. 오즈시 역사박물관은 "이번 조사에서 복장물이 발견된 호법동자상은 12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됐으며, 높이 76.5cm의 목조 불상이다. 1970년대까지 엔랴쿠지의 법당에 봉안되어 왔다"고 유래를 전했다. 또 "호법동자는 보통 족자로 봉안되는데 반해 목조로 조성한 예는 드물다"고 밝혔다.

엔랴쿠지는 소장해 오던 호법동자상은 세월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고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해체수리를 진행해 왔다. 이중 동자상의 머리 부분에서 높이 9.5cm의 금동부동명왕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부동명왕상은 입상으로, 바위를 표현한 목조 좌대를 제외한 화염광배와 전신에 모두 도금됐으나 상호와 일부 신체는 금니로 덧칠이 되어 있다. 또 영락과 같은 장신구와 지물은 별도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조성됐다. 지금까지 호법동자상에 대한 보수나 해체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동자상이 조성된 시대와 동일한 시기의 작품으로 판명됐다.

박물관 측은 "일반적으로 습기로 인한 터짐을 막기 위해 파낸 구멍 속에 복장물을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부동명왕상은 동자상의 머리 안에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안치되어 있어 당초 동자상을 조상하면서 부동명왕상을 안치할 것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불사리를 모신 수정오륜탑과 부동명왕을 찍어낸 판화 등이 복장유물로 발견됐다. 판화는 총 50매의 종이에 각 200구의 부동명왕을 찍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엔랴쿠지측은 "호법동자상의 복장으로 부동명왕을 안치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회봉 수행자들을 흔히 '살아있는 부동명왕' 으로 생각하는 민간신앙과 호법동자가 회봉수행자들의 수호신으로 신앙되는 점에서 연계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발견된 부동명왕상은 오는 12월 6일까지 다른 복장유물들과 함께 히에이산의 성보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주 꽝민사원, 지역사회에 대중공양

노숙자 · 유학생 우선 지원


꽝민사원 자원봉사자들. 사진출처 = SBS비엣나미즈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꽝민사원이 생활고에 놓인 노숙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지속하고 있어 화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소재한 꽝민(光明)사원은 베트남 이주민들이 모이는 불교사원으로, 초창기 호주에 세워진 불교사원 중 한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10월 19일 호주의 'SBS비엣나미즈' 보도에 따르면 꽝민사원의 사부대중들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더욱 생활고에 빠진 노숙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대중공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3개월간 900회 이상 진행된 대중공양은 베트남음식으로 마련된 비건식 식사로 일주일에 50~80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 모든 음식은 꽝민사원의 자원봉사들이 사찰에서 조리하고 포장하며, 사회적 취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제공하고 있다.

꽝민사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와 수혜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지칠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의 열정이 빅토리아주와 다른 다문화 공동체에도 널리 알려져, 모두 함께하는 연대를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의 선행으로 이어지는 영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꽝민사원의 국제 학생 코디네이터 란안(Lan Anh)은 "대중공양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도, 수혜자가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꽝민사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지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해, 더 나아간 해결책도 고심 중 임을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